

쿠파란 사본과 성서 연구 - 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중심으로 -

송창현*

머리말

20세기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불리는 사해 두루마리(Dead Sea Scrolls)는 1947년 봄 베두인 목동 무하마드 아드-디브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그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쿠파란 근처에서 가축 떼를 돌보던 중 잃어버린 염소를 찾다가 동굴을 발견하였고 그곳에서 두루마리들이 발견되었다. 그 후 1956년까지 사해 서안 유대 광야의 여러 곳, 즉 키르벳 쿠파란, 마사다, 와디 무라바트, 나할 헤베르, 나할 세일림, 나할 미쉬마르 등에서 발견된 고대 유대 사본들을 넓은 의미의 사해 두루마리라고 부른다. 그리고 특히 사해의 북서 연안에 위치한 키르벳 쿠파란 주변의 열한 개 동굴에서 발견된 850여 종류의 사본을 좁은 의미의 사해 두루마리, 즉 쿠파란 사본이라고 부른다.

쿠파란 사본은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즉, 구약성서의 사본들, 외경과 위경의 사본들, 그리고 쿠파란 공동체와 관련 있는 사본들이다. 첫째, 쿠파란에서는 에스텔서를 제외한 모든 구약성서의 사본이 200여 개 발견되었다. 이 성서 사본들은 레닌그라드 사본(1008년경)이나 알렘포 사본(925년경)보다 1000년 이상 더 오래된 것이다. 쿠파란의 이 사본들은 구약성서의 정경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의 본문으로서, 마소라 본문, 70인역 본문, 사마리아 오경 본문 등과 함께 구약성서 본문 형성의 역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둘째, 쿠파란 사본의 발견 이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리스어, 에디오피아어, 라틴어 등 고대 언어의 번역으로만 알려졌던 구약성서의 외경(apocrypha)과 위경(pseudepigrapha)의 히브리어, 아람어 원본들이 쿠파란에서 발견되었다. 그리고 셋째, 전체 쿠파란 사본의 약 삼분의 일은 쿠파란 공동체의 조직, 생활과 사상을 반영하는 사본들이다. 이 사본들을 통해 우리는 에세네파와 쿠파란 공동체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풍부한 지식을 가지게 되었다. 쿠파란 사본은 신구약 중간 시기의 유대 문헌으로서 당시 유대 이즘의 연구를 위한 일차적인 사료가 된다. 그리고 쿠파란 공동체와 쿠파란 사본은 초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과 교수, 성서학

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신약성서의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쿨란 사본과 성서 연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쿨란 사본 중에서 성서 연구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4Q285, 4Q448, 4Q246, 7Q5, 11Q13 등의 사본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각 사본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본문의 번역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본문에 대해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론(*méthode littéraire et historique*)으로 분석할 것이다. 우리는 쿨란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구약성서 뿐 아니라 신약성서 연구를 위해 가지는 각 사본의 가치를 밝히려고 한다.

1. 4Q285

1.1. 사본 소개

4Q285는 10개의 단편으로 구성된 히브리어 사본이다. 이 사본은 밀릭(J. T. Milik)에 의해 1972년에 처음으로 알려졌다.¹⁾ 그는 4Q285가 11Q14²⁾와 내용상 서로 중복되며, 전쟁 규칙서의 잃어버린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 사본의 저작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초보다 훨씬 늦거나 이미 기원전 2세기 후반부 경이라 추정했다.

특히 4Q285는 소수의 학자들에 의해 주장된 충격적인 해석 때문에 학자들 뿐 아니라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들은 메시아의 폭력적인 죽음을 묘사하는 쿨란 사본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했으며, 쿨란 공동체와 그리스도교의 역사 연구를 위한 매우 중요한 사본을 감추었다는 이유로 쿨란 사본 국제 위원회를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세계의 언론을 장식하였다.³⁾

그 후 이 사본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⁴⁾ 그리고 이 사본의 DJD 공식판

1) J. T. Milik, "Milkî-sedeq et Milkî-resa dans les anciens écrits juifs et chrétiens," *JJS* 23 (1972), 95-144.

2) A. S. van der Woude, "Ein neuer Segensspruch aus Qumran (11QBer)," S. Wagner, ed., *Bibel und Qumran. Beiträge zur Erforschung der Beziehungen zwischen Bibel-und Qumranwissenschaft. Hans Bardtke zum 22. 9. 1966* (Berlin: Evangelische Haupt- Bibelgesellschaft, 1968), 253-258.

3) *The New York Times* 1991. 11. 8; *The Times* 1991. 11. 9; *The Chicago Tribune* 1991. 11. 11; *The Independent*, 1991. 12. 27; Katholische Nachrichten-Agentur 263 1991. 11. 13; R. H. Eisenman and M. O. Wise, *The Dead Sea Scrolls Uncovered* (Shaftesbury: Element, 1992), 24-29; J. D. Tabor, "A Pierced or Piercing Messiah? - The Verdict Is Still Out," *BAR* 18:6 (1992), 58-59.

4) G. Vermes, "The Oxford Forum for Qumran Research: Seminar on the Rule of War from Cave 4

(editio princeps)은 2000년에 출판되었다.⁵⁾ 공식판에 따르면, 4Q285의 내용은 전쟁 규칙서와 관련은 있으나 제 1 동굴과 제 4 동굴의 전쟁 규칙서(1QM과 4Q491-496)의 내용과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식판은, 독립적이지만 전쟁 규칙서와의 관련성을 표시하기 위해 4Q285를 “전쟁의 책”(סֵפֶר הַמִּלְחָמָה)이라 부르기를 제안한다.⁶⁾ 한편 4Q285의 재구성은 매우 흥미로운데, 특히 4Q285와 11Q14 사이의 관계에 대한 논란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4Q285 fig. 7과 11Q14 1 i

(4Q285),” *JJS* 43 (1992), 85-90; M. Bockmuehl, “A ‘Slain Messiah’ in 4QSeikh Milhamah (4Q285)?” *Tyndale Bulletin* 43 (1992), 155-169; B. Z. Wacholder and M. G. Abegg, *A Preliminary Edition of the Unpublished Dead Sea Scrolls, fasc. 2* (Washington: Biblical Archaeology Society, 1992), 223-227; T. H. Lim, “11QMelch, Luke 4 and the Dying Messiah,” *JJS* 43 (1992), 90-92; R. P. Gordon, “The Interpretation of Lebanon and 4Q285,” *JJS* 43 (1992), 92-94; G. Vermes, “The ‘Pierced Messiah’ Text - An Interpretation Evaporates,” *BAR* 8:4 (1992), 80-82; A. Sussman and R. Peled, ed., *Scrolls from the Dead Sea: An Exhibition of Scrolls and Archaeological Artifacts from the Collections of the Israel Antiquities Authority*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93), 80-83; O. Betz and R. Riesner, *Jesus, Qumran und der Vatikan: Klarstellungen* (Brunnen; Freiburg: Gießen; Herder, 1993), 103-110; B. Nitzan, “Benedictions and Instructions for the Eschatological Community (11QBer; 4Q285),” *RQ* 16 (1993-1995), 77-90; B. Nitzan, *Qumran Prayer and Religious Poetry* (Leiden: E. J. Brill, 1994), 139-143, 167-170; M. G. Abegg, “Messianic Hope in 4Q285: A Reassessment,” *JBL* 113 (1994), 81-91; É. Puech, “Des Esséno-zélotés chrétiens de Judée! Une position originale sur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Les dossiers d’archéologie* 189 (1994), 97-101; C. Martone, “Un testo qumranico che narra la morte del Messia? A proposito del recente dibattito su 4Q285,” *Rivista biblica* 42 (1994), 329-336; L. H. Schiffman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4), 344-347; W. J. Lyons, “Possessing the Land: The Qumran Sect and the Eschatological Victory,” *DSD* 3 (1996), 130-151; G. Vermes,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3rd. ed. (London: The Penguin Press, 1997), 187-189; É. Puech,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RQ* (1997), 255-298; D. Flusser, “La mort du méchant roi (4Q285),” Y. Hoffman and F. H. Polak, eds., *A Light for Jacob: Studies in the Bible and the Dead Sea Scrolls. In Memory of Jacob Shalom Licht* (Jerusalem: Bialik Institute, 1997), 254-262; F. García Martínez, E. J. C. Tigchelaar, and A.S. van der Woude, “11Q14(Sefer ha-Milhamah),” *DJD*, XXIII (Oxford: Clarendon Press, 1998), 243-251; J. Zimmermann, *Messianische Texte aus Qumran* (Tübingen: J.C.B. Mohr, 1998), 71-96; W. J. Lyons, “Clarifications concerning 4Q285 and 11Q14 arising from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23,” *DSD* 6 (1999), 37-43; P. S. Alexander, “A Reconstruction and Reading of 4Q285 (4QSefer ha-Milhamah),” *RQ* 19 (1999-2000), 333-348; E. J. C. Tigchelaar, “Working with Few Data: The Relation between 4Q285 and 11Q4,” *DSD* 7 (2000), 49-56; J. C. O’Neill, “Who Killed Whom (4Q285) without the Camp (Heb 13:12-13),” *JHC* 9 (2002), 125-139; J. North, “Observations on the Official Material Reconstruction of Sefer ha-Milhamah (11Q14 and 4Q285),” *RQ* 21 (2003), 3-27; É. Puech,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et le Nouveau Testament,” E.-M. Laperrousaz, éd., *Qoumrân et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Un cinquantenaire* (Paris: Cerf, 1997), 253-313; G. G. Xeravits, *King, Priest, Prophet: Positive Eschatological Protagonists of the Qumran Library* (Leiden: E. J. Brill, 2003), 63-68.

5) P. Alexander and G. Vermes, “4Q285,” S. J. Pfann et al., *DJD*, XXXVI (Oxford: Clarendon Press, 2000), 228-246.

6) P. Alexander and G. Vermes, “4Q285,” 231-232.

2-15이 병행하고, 4Q285 frg. 8은 11Q14 1 ii 2-15와 병행한다는 가설을 우리는 개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⁷⁾

그리고 사본의 필체는 1QM과 유사하다. 크로스(F. M. Cross)에 따르면,⁸⁾ 이것은 기원전 1세기 말경의 초기 정형 헤로데 필체로 쓰여졌다. 이 연대 추정 은 탄소 연대측정(Radiocarbon) 방법과도 일치한다.⁹⁾ 뻬에쉬(É. Puech)는 4Q285의 저작 연대를 늦어도 기원전 1세기 초 아니면 이미 2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¹⁰⁾ 우리는 여기에서 4Q285의 단편들 중에서 특히 논란이 많은 Frg. 7에 대해 다루어 보기로 한다.

1.2. 본문과 사본¹¹⁾

4Q285 frg. 7

1 כאשר כתוב בספר [ישעיהו הנביא ונוקפו]
 2 [סבכי היער בברזל ולבנון באדיר י] פול ויצא חוטר מגזע ישי
 3 [הם הכתיים אשר ילחמו על ישראל ועל] צמח דויד ונשפטו את
 4 [גבורי הגוים ונפלו הכתיים ומלכם] והמיתו נשיא העדה צמ[א]
 5 [הגבורים יכו הכתיים וחללום בנגועי]ם ובמחוללות וצוה כוהן
 6 [הרואש ותקעו הכוהנים בחצוצרות וח]לל[י] כתיי[ם]ל[]

1 이사야 예언자의 [책에 쓰여진 대로,]

2 [“잡목 숲은 쇠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돌아나리라.”

7) W. J. Lyons, “Clarifications concerning 4Q285 and 11Q14 arising from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23,” 37-43; F. García Martínez, E.J.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 “11Q14(Sefer ha-Milhamah),” 245-246; W. J. Lyons, “Clarifications concerning 4Q285 and 11Q14 arising from Discoveries in the Judaean Desert 23,” 37-43; P. S. Alexander, “A Reconstruction and Reading of 4Q285 (4QSefer ha-Milhamah),” 333-348; E. J. C. Tigchelaar, “Working with Few Data: The Relation between 4Q285 and 11Q4,” 49-56; P. Alexander and G. Vermes, “4Q285,” 229.

8) F. M. Cross, “The Development of the Jewish Scripts,” G. E. Wright, ed., *The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Essays in Honor of William Foxwell Albright* (New York: Doubleday, 1961), 138, fig. 2, line 4.

9) G. G. Xeravits, *King, Priest, Prophet: Positive Eschatological Protagonists of the Qumran Library*, 64.

10) É. Puech,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274.

11) P. Alexander and G. Vermes, “4Q285,” 238-239; F. García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2 (Leiden: Brill, 1997), 642-643. 본문의 재구성은 다음을 보라. É. Puech, “Des Esséno-zélotes chrétiens de Judée! : Une position originale sur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99; É. Puech,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et le Nouveau Testament,” 277.

3 [그들은 키템인데 이스라엘과] 다윗의 자손을 [거슬러 전쟁을 할 것이고,] 그들은

4 [민족들의 용사들]과 함께 심판 받을 것이다. [키템과 그들의 왕은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우두머리는 그를 죽일 것이고

5 [용사들의] 군대[는 키템을 칠 것이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6 그리고 [대]사제는 명령을 내리고 [사제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키템의 [상]처 받은 이들.

1.3. 본문 분석

4Q285 frg. 7의 1-2행은 이사 10,34-11,1의 인용으로 시작한다. 이 이사야 구절에 대한 쿠파란 공동체의 종말론적 해석은 4Q161(pIs^a) 7-10 iii과 1QSb V 20-29 등에도 나타난다. 이사야서의 인용은 사본의 정확한 너비를 가늠하게 하고 본문의 어휘를 이해하게 할 뿐 아니라 본문 전체 맥락의 의미를 방향 지운다. 3행부터는 앞서 인용된 이사 10,34-11,1에 대한 해석이다. “다윗의 후손”(צמח דוד)이라는 표현은 구약성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예레 23,5; 33,15 등에서 유래한다. 이 표현은 4Q161 7-10 iii 22; 4Q174 I 1-13; 4Q252 v 3-4 등에서 메시아를 가리킨다. 그리고 4행의 “공동체의 우두머리”(נשיא העדה) 역시 1QSb V 20-29; CD VII 18-21; 4Q161 2-6 ii 19; 1QM V 1 등에서 메시아를 가리킨다. 쿠파란 사본에서 “다윗의 후손”(צמח דוד)과 “공동체의 우두머리”(נשיא העדה)는 쿠파란 공동체의 두-메시아 사상(messianisme bicéphale)의 맥락 안에서 종말론적 대사제로서의 메시아와 함께 나타날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킨다. 정치적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도 불리며, 마지막 날에 적들(=키템)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서의 메시아이다. 이와 같이 쿠파란 공동체의 에세네파는 이스라엘의 해방과 이상적인 하느님 백성의 승리라는 예언과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다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4Q285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구절은 4행이다. 문제는 והמיתו라는 동사이다. 이 사본은 모음이 없는 자음만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 והמיתו를 이해하는 데 다음 두 가능성이 있다. 첫째, והמיתו “그리고 그들은 죽일 것이다”. 즉 히필, 완료형의 연속, 3인칭 복수 공통으로 읽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 “공동체의 우두머리” 즉 “다윗의 후손”은 동사의 목적어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4Q285가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 사상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¹²⁾ 즉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독창적인 사상이 아니라

12) R. H. Eisenman and M. O. Wise, *The Dead Sea Scrolls Uncovered*, 24-27; J. D. Tabor, “A Pierced or Piercing Messiah? - The Verdict Is Still Out,” 58-59.

이미 예수 이전에 유다이즘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다.

둘째, וְהָמִיתוּ “그리고 그는 그를 죽일 것이다”. 즉 히필, 완료형의 연속, 3인칭 단수 남성 + 3인칭 단수 남성 목적격 접미사로 읽는 가능성이다. 이 경우 동사의 주어는 “공동체의 우두머리”이고 동사의 목적어는 키팀의 우두머리가 된다. 이 두 가능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해석일까? 문제의 해답을 위해서 문법적인 고찰과 함께 4Q285 사본 전체의 맥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미 살펴 본대로 4Q285 frg. 7 1-2에서 인용된 이사 10,34-11,1은 본문의 맥락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즉 우리 본문은 종말의 전쟁과 키팀 왕에 대한 메시아 왕의 승리를 묘사한다. 이것은 같은 이사야의 본문이 4Q161(pIs^a) 7-10 iii 등에서 메시아적으로 해석되는 것으로 입증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사 וְהָמִיתוּ의 주어는 키팀이 아니라 “공동체의 우두머리” 즉 메시아이다.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키팀의 왕을 죽이는 것이다. 동사 וְהָמִיתוּ는 וְהָמִיתָ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4Q285에서 메시아의 죽음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분석한 대로 4Q285 frg. 7은 적들에 대한 종말론적 전쟁에서의 마지막 승리를 묘사한다.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마지막 승리자이다. 5행에서 대사제로서의 메시아도 언급되지만 본문 안에서는 그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4Q285는 종말론적 전쟁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다. 따라서 이 사본은 제 1 동굴과 제 4 동굴의 전쟁 규칙서(1QM과 4Q491-496)에서 묘사된 것 이후의 상황을 묘사한다. 그리고 4Q285에는 1QM과 4Q491-496와는 달리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결정적인 승리자의 역할을 한다.

사실 전쟁 규칙서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 간의 40년에 걸친 종말론적 전쟁에 관한 것이다. 즉 이 전쟁을 위한 전략과 군대의 조직, 배치 등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쿨란에서 전쟁 규칙서가 하나의 판본이 아니라 1QM, 4Q471, 4Q491-496 등 다양한 판본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것은 쿨란 공동체가 종말론적 전쟁의 전술을 계속해서 재검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전쟁의 책”인 4Q285는 마지막 전투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쿨란 공동체의 묵시문학적 묘사인 것이다.

2. 4Q448

2.1. 사본 소개

쿰란 사본 중에서 비(非) 성서적 사본, 즉 쿰란 공동체 혹은 전(前)-쿰란 공동체와 관련되는 사본에는 당대의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언급된다. 4Q322 fr. 2, 4의 שלמציין(알렉산더 얀네우스의 부인 알렉산드라), 4Q324a fr. 2, 4.8의 הרקנוס(요한 히르카누스 2세)와 אמליוס(아멜리우스), 4Q324b fr. 2의 יוחנן(요한 히르카누스 2세), 그리고 4Q169 i 2-3의 דמיטרוס(데메트리우스)와 אנתיכוס(안티오쿠스) 등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4Q448에는 요나단 왕(יונתן המלך)이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이 사본은 가로 9.5cm, 세로 17.8cm의 하나의 작은 단편이다. 히브리어로 된 이 사본의 윗 부분에는 A열이, 아랫 부분에는 오른쪽에 B열이, 왼쪽에는 C열이 있다. 4Q448의 공식판(editio princeps)은 에셀(E. Eshel), 에셀(H. Eshel), 그리고 야르데니(A. Yardeni)에 의해 1998년 출판된 DJD XI에서 “4QApocryphal Psalm and Prayer”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다.¹³⁾ 이 공식판의 출판을 전후로 4Q448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정체에 대한 활발한 논란이 있었다.¹⁴⁾ 공식판의 발표자들은 4Q448을 요나단 왕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도로 해석하고, 이 요나단은 기원전 103-76년까지 통치한 알렉산더 얀네우스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본이 얀네우스가 살아있을 당시인 기원전 1세기 전반부 즉 얀네우스의 통치 말기인 기원전 80년에 저작되었으며 필사되었다고 주장했다.¹⁵⁾

2.2. 본문과 번역¹⁶⁾

13) E. Eshel, H. Eshel, and A. Yardeni, “4QApocryphal Psalm and Prayer(4Q448),” *DJD*, XI (Oxford: Clarendon Press, 1998), 403-425.

14) E. Eshel, H. Eshel, and A. Yardeni, “A Qumran Composition Containing Part of Ps. 154 and a Prayer for the Welfare of King Jonathan and his Kingdom,” *IEJ* 42 (1992), 199-229; G. Vermes, “The So-Called King Jonathan Fragment (4Q448),” *JJS* 44 (1993), 294-300; P. S. Alexander, “A Note on the Syntax of 4Q448,” *JJS* 44 (1993), 301-302; É. Puech, “Jonathan le prêtre impie et les débuts de la communauté de Qumrân: 4QJonathan (4Q523) et 4QPsAp (4Q448),” *RQ* 17 (1996), 241-270; A. Lemaire, “Le roi Jonathan à Qoumrân(4Q448 B-C),” E.-M. Laperrousaz, éd., *Qoumrân et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Un cinquantenaire* (Paris: Cerf, 1997) 57-70; É. Puech, “4QJonathan(4Q523),” *DJD*, XXV (Oxford: Clarendon Press, 1998), 75-83; É. Puech, “Le grand prêtre Simon (III) fils d’Onias III, le Maître de Justice?” A. Steudel, et al., eds., *Antikes Judentum und Frühes Christentum. Festschrift für Hartmut Stegemann zum 65. Geburtstag*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137-158.

15) E. Eshel, H. Eshel, and A. Yardeni, “A Qumran Composition Containing Part of Ps. 154 and a Prayer for the Welfare of King Jonathan and his Kingdom,” 199-229; E. Eshel, H. Eshel, and A. Yardeni, “4QApocryphal Psalm and Prayer(4Q448),” 403-425.

16) 본문의 재구성과 번역은 다음을 보라. É. Puech, “Jonathan le prêtre impie et les débuts de la communauté de Qumrân: 4QJonathan (4Q523) et 4QPsAp (4Q448),” 256-257; F. García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2, 928-929.

A

- 1 הללויה מזמו[ר] שיר]
- 2 אהבת כח[סדר]
- 3 סרות על]
- 4] vacat
- 5 ויראו מסנ]
- 6 רבים השם ל]
- 7 ולתהום ים [השליכם הנה עיני יהוה על טובים תחמל]
- 8 ועל מפארו י[גדל חסדו מעת רעה יציל נפשם ברוך יהוה גואל]
- 9 עני מיד צרים] מציל תמימים מיד רשעים נוטה]
- 10 משכנו בציון מ[תיציב לעלמי עלמים בירושלים בירושלים]

B

- 1 עור קדש
- 2 על יונתן המלך
- 3 וכל קהל עמך
- 4 ישראל
- 5 אשר בארבע
- 6 רוחות שמים
- 7 יהו שלום כלם
- 8 ועל ממלכתך
- 9 ויתברך שמך

C

- 1 באהבתך את הח[סדים]
- 2 ביום ועד ועדב מן]
- 3 לקרוב להיות לכ]
- 4 פקדם לברכה]
- 5 על שמך שנקרא]
- 6 ממלכה להבבכ]
- 7 ולתום מלחמתיו]
- 8 יונתן וכל עמך]
- 9 מת[ק]רב]

A열

- 1 할렐루야, 시편, 노래 []
- 2 당신은 호[의]로 사랑하였고 []
- 3 당신은 [] 위에 권세를 가졌고 []
- 4 여백 []
- 5 그리고 [당신의] 적들은 두려워했도다 []
- 6 그분은 많은 이를 치셨도다 []
- 7 바다의 깊은 곳까지 [그분은 그들을 던졌도다. 보라, 주님의 눈은 선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도다]
- 8 그분을 찬양하는 이들에게 [그분은 큰 호의를 허락하셨고 불행한 때에 그분은 그들의 영혼을 구하셨도다. 주님은 찬양받으소서,]
- 9 가난한 이를 적들의 손에서 [속량하셨고, 악인들의 손에서 완전한 이들을 해방시키셨도다. 그분은]
- 10 그의 천막을 시온에 [펼치시고, 그것은 예루살렘에 영원히 세워지도다.]

B열

- 1 일어나소서, 오, 거룩하신 이여!
- 2 요나단 왕을 위하여
- 3 그리고 당신 백성의 모든 모임을 위하여
- 4 이스라엘
- 5 사방에 있는 이들
- 6 하늘의 바람들
- 7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 8 그리고 당신의 왕국을 위하여
- 9 당신의 이름은 찬양 받으소서!

C열

- 1 왜냐하면 당신은 [경건한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
- 2 낮 동안과 밤까지 []
- 3 가까이 가기 위하여 []
- 4 축복을 위해 그들을 방문하며 []
- 5 불려진 당신 이름으로 []
- 6 왕국을 축복하기 위해 []
- 7 전쟁을 끝내기 위해 []

8 요나단과 당신의 백성 []

9 가[까]이 가면서 []

2.3. 본문 분석

4Q448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논점은, 이 사본이 요나단 왕에 대해 호의적인가 비판적인가의 문제, 사본의 필사 및 저작시기 추정, 그리고 이 요나단 왕은 누구인가의 문제들이다. 이러한 논점들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공식판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즉 4Q448의 요나단 왕을 알렉산더 안네우스로 해석하는 공식판을 우리는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사실 하스모네아 왕조에서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통치자는 둘이었다. 즉 요나단 마카베오와 알렉산더 안네우스가 그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요나단 마카베오의 가능성을 분석해 볼 것이다.

4Q448의 내용 면에서 보면 A열에는 위경 시편 154편(11Q5=11QPs^a XVIII)이 재수록되어 있는데 그 병행 구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4Q448 A	시편 154
5b-6a	154,1
6b-7a	154,3
7b	154,16
8a	154,17
8b-9a	154,18
9b-10	154,20

그리고 4Q448의 B열과 C열은 요나단 왕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기도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본은 요나단에 대해 호의적인 본문이다. B열 1행은 עֲוֹר קִדָּשׁ(일어나소서, 오, 거룩하신 이여!)로 시작하는데 קִדָּשׁ는 하느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עֲמָךְ(3행), מַמְלַכְתְּךָ(8행), שִׁמְךָ(9행)의 단수 2인칭 대명사 접미사는 하느님을 의미한다. 명령형 동사 עֲוֹר는 전치사 עַל(2행과 8행)에 연결되는데, 그 의미는 부정적, 비판적(거슬러, 반대하여)이지 않고 긍정적, 호의적(위하여, 위에)이다. 따라서 2행의 עַל יוֹנָתָן הַמֶּלֶךְ은 “요나단 왕을 위하여”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사실 요나단의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그를 알렉산더 안네우스와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손쉬운 해결인 듯이 보인다. 왜냐하면 여러 고고학적이고 문헌적인 증거들, 즉 옥새와 동전에 새겨진 글이나 역사가 플라비우스 요세푸스에 따르면

(유대전쟁 I 85; 유대고대사 XIII 320) 알렉산더 얀네우스는 왕과 대사제 칭호를 가진다:

כהן גדל/מלכא אלכסנדרוס/ΑΛΕΞΑΝΔΡΟΥ ΒΑΣΙΛΕΥΣ/יהונתן המלך

4Q448이 요나단 왕에 대해 호의적이고 이 요나단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면, 이 친(親)-하스모네아적인 사본은 하스모네아 왕조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졌던 에세네-쿰란 공동체와는 완전히 배치된다. 그리고 얀네우스는 쿰란 문헌(4Q169와 4Q167)에서 “성난 새끼 사자”로 거론되며 매우 심한 비판을 받는다. 이와 같이 4Q448의 요나단이 대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가설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요나단 마카베오(기원전 160-142년)의 가능성을 살펴볼 차례이다. 사실 그 어떤 고고학적이고 문헌적인 증거들에서도 요나단 마카베오가 결코 왕이라고 불린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Q448의 문맥으로 보면 여기서의 요나단은 알렉산더 얀네우스보다는 요나단 마카베오가 더 적합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쿰란 문헌에서 요나단은 기원전 152년 이전에는 유대의 군사 및 행정 책임자(στρατηγός와 μεριδάρχης)로서(1마카 10,65) 이스라엘의 해방자로, 유대 신앙의 수호자로, 예루살렘의 정복자요 재건설자로 찬양 받았다. 즉 그는 처음엔 충실한 사람으로 묘사되다가 이스라엘 통치 기간 중 악한 사제가 된다:

1QpHab VIII 8-9

פשונו על הכהן הרשע אשר 8
נקרא על שם האמת בתחלת עומדו וכאשר משל 9
בישראל 10

“이것의 해석은 악한 사제에 관한 것인데, 그는 처음에는 진리의 이름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느님을 버렸으며”.

요나단 마카베오는 기원전 152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직을 찬탈하였으며, 그 후 쿰란 사본에서 악한 사제(הכהן הרשע)로 불린다: 1QpHab I 13; VIII 8; IX 9; XI 4; XII 2, 8; 4Q163 30, 30; 4Q171 1-10 iv 8. 그는 알렉산더 발라스에 의해 대사제로 임명되었고 재물욕으로 말미암아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남용하였을 뿐 아니라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여 성전을 더럽혔다. 또한 그는 정의의 스승을 유배지(1QpHab XI 4-8)에서까지 박해했다(4Q171 1-10 iii 15).

따라서 4Q448은 요나단이 대사제직을 찬탈하여 에세네-쿰란 공동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기원전 152년 이전의 상황을 반영한다. 왜냐하면 이 사본에는

요나단 마카베오의 대사제직에 대한 그 어떠한 암시도 없다. 단지 민족의 우두머리 왕으로서의 그의 정치적인 역할만이 언급될 뿐이다.

한편 왕이라는 호칭에 관하여 히브리어적, 아람어적 용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요나단 마카베오를 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데 시몬은 1마카 13,8-53에서 ἡγούμενος로 불리며 이 단어는 에제 43,7에서 מלך에 해당한다. 요나단은 ἡγούμενος 뿐 아니라 욥 15,24와 다니 10,13 등에서 מלך를 번역하는 στρατηγός로 불린다.¹⁷⁾ 이와 같이 히브리어나 아람어 용법에서는 요세푸스보다 더 약한 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¹⁸⁾

따라서 4Q448 B-C 열은 기원전 160년에서 152년까지의 정치적 상황에 적합하고, 4Q448 A 열은 그보다 약 10년 앞선 시기에 적합하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뻐에쉬(É. Puech)의 고문서학적 연대추정에 대해 따르면, 이 사본은 기원전 2세기 후반부의 이른 시기에 필사되었다.²⁰⁾

이상에서 분석한 대로, 4Q448은 또 다른 요나단 사본인 4Q523과 함께 요나단 마카베오에 대한 매우 귀중한 증거이다. 4Q448은 기원전 2세기 중반경의 에세네-쿰란 공동체의 초기 역사적 상황과 부합한다. 요나단은 정통 대사제 집안인 사독 집안 출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정통 대사제를 쫓아내고 대사제직을 찬탈하였다. 이때 쫓겨난 정통 대사제가 바로 쿰란 공동체의 창시자인 정의의 스승(מוריה הצדק)²¹⁾이다. 요세푸스는 대사제의 명단에서 기원전 159년에서 152년 사이의 대사제를 언급하지 않는데(유대 고대사 XX 237), 이 시기의 대사제가 바로 정의의 스승이다. 정의의 스승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함께 유대 광야로 가서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1QS VIII 12-16; IX 19-21) 이것이 바로 에세네파 쿰란 공동체의 시작이다. 이와 같이 쿰란 사본에서 악한 사제로 묘사되는 요나단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쿰란 공동체의 초기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17) É. Puech, “4QJonathan(4Q523),” 76.

18) G. Vermes, “The So-Called King Jonathan Fragment (4Q448),” 298.

19) É. Puech, “4QJonathan(4Q523),” 76.

20) É. Puech, “Jonathan le prêtre impie et les débuts de la communauté de Qumrân: 4QJonathan (4Q523) et 4QPsAp (4Q448),” 258.

21) “정의의 스승”이라는 표현은 쿰란 사본에서 13번 나온다. CD I 11; XX 32; 1QpHab I 13; II 2; V 10; VII 4; VIII 3; IX 9; XI 5; 1Q14 X 4; 4Q171 1-10 iii 15; 4Q173 frg. i 4; frg. ii 2. 정의의 스승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들과 참고문헌들을 잘 정리해 놓은 두 편을 소개한다. J. Murphy-O'Connor, “Teacher of Righteousness,” *ABD* 6 (1992), 340-341; M. A. Knibb, “Teacher of Righteousnes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918-921.

3. 4Q246

3.1. 사본 소개

4Q246은 두 개의 열로 구성된 하나의 아람어 단편 사본이다. 그 크기는 최대 가로 14.1cm, 세로 8.8cm이며, 둘째 열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으나 첫째 열의 반은 손상되어 있다.²²⁾ 밀릭(J. T. Milik)이 1972년 하버드 대학교의 공개 강연에서 이 사본을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²³⁾, 본문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아들”(ברך די אל)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בר עליין)로 불리는 인물의 정체에 대한 많은 논란은 계속되었다. 그 후 4Q246의 발표 책임은 예루살렘 성서 및 고고학 연구소(Ecole Biblique)의 뤼에쉬(É. Puech) 교수가 맡게 되었으며, 그는 마침내 1996년 DJD의 공식판²⁴⁾을 발표하였다.

4Q246의 본문이 학계에 발표된 이후, 학자들 뿐만 아니라 대중의 관심을 끈 이유는 이 사본과 루가 1,32-35 사이에 나타나는 놀라운 문학적, 어휘적 유사성 때문이다:

4Q246	루가 1장
(i열 7행) רב לחוה על ארעא 그는 땅위에서 위대하게 될 것이다	οὗτος ἔσται μέγας (32절)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다
(ii열 1행) ובר עליין יקרונה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υἱὸς ὑψίστου κληθήσεται (32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22) 4Q246의 사진은 PAM 42.601과 43.236을 보라.

23) 쿰란 사본 국제위원회는 1958년 7월 9일에 4Q246을 구입하여, 밀릭(Milik)에게 그 공식판의 발표를 맡겼다. 피츠마이어(Fitzmyer)는 1972년 12월 하버드 대학에서 있었던 밀릭(Milik)의 강연을 소개하였다. J. A. Fitzmyer, “The Contribution of Qumran Aramaic to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NTS* 20 (1973-74), 382-407. 이 글은 다음 책에 재수록되었다. J. A. Fitzmyer, *A Wandering Aramean. Collected Aramaic Essays* (Missoula: Scholars Press, 1979), 85-113. 그리고 밀릭(Milik)의 다음 글들을 보라. J. T. Milik, *The Books of Enoch, Aramaic Fragments of Qumran Cave 4* (Oxford: Clarendon, 1976), 60, 213, 261; J. T. Milik, “Les modèles araméens du livre d'Esther dans la grotte 4 de Qumrân,” *RQ* 15 (1991), 321-399, 특히 383-384.

24) É. Puech, “4QApocryphe de Daniel ar,” É. Puech, et al., *DJD*, XXII (Oxford: Clarendon, 1996), 165-184. 사본의 예비판(publication préliminaire)은 다음과 같다. É. Puech, “Fragment d'une apocalypse en araméen (4Q246 = pseudo-Dand) et le ‘Royaume de Dieu’,” *RB* 99 (1992), 98-131; É. Puech, “Notes sur le fragment d'apocalypse 4Q246 - ‘le fils de Dieu’,” *RB* 101 (1994), 533-558.

(ii열 1행) ברה די אל יתאמר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κληθήσεται υἱὸς θεοῦ (35절)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 다
(ii열 5행) מלכותה מלכות עלם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	βασιλεύσει.....εἰς τοὺς αἰῶνας (33절) 그는 다스릴 것이다.....영원히

4Q246의 필체는 후기 정형 하스모네아 필체 혹은 초기 헤로데 필체와 전형적인 초기 정형 헤로데 필체 사이의 것으로, 사본의 필사 시기는 기원전 25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묵시문학적 작품인 4Q246의 문학적 구조는, 상황묘사와 해석자의 소개(i열 1-3행), 해석의 첫째 부분(i열 4행-ii열 3행), 해석의 둘째 부분(ii열 4-9행) 등 세 부분으로 나뉜다.²⁵⁾

3.2. 본문²⁶⁾과 번역²⁷⁾

i열

- 1 [קדם מלכא ודחלה ע]לוהי שרת נפל קדם כרסיא
2 [ואמר לה חיים מ]לכא {ל} <מ>עלמא אתה רגש ושניך
3 [סכינן אפשר מל]כא חזוך וכלא אתה עד עלמא
4 [להוה רגש רב ובר]ב רבין עקה תתא על ארעא

25) 본문의 구조에 대한 다른 의견은 다음을 보라. J. Zimmermann, “Observations on 4Q246 - The ‘Son of God’,” J. H. Charlesworth, et al., *Qumran-Messianism* (Tübingen: J.C.B. Mohr, 1998), 181-184.

26) 본문의 재구성을 위하여: É. Puech, “4QApocryphe de Daniel ar,” 165-184; “Le ‘fils de Dieu’ en 4Q246,” *Eretz-Israel* 26 (1999), 143-152; J. A. Fitzmyer, “4Q246: The ‘Son of God’ Document from Qumran,” *Bib* 74 (1993), 153-174; K. Beyer, *Die aramäischen Texte vom Toten Meer*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4), 109-113; J. A. Fitzmyer, “The Aramaic ‘Son of God’ Text from Qumran Cave 4,” M. O. Wise, et al., ed., *Methods of Investigation of the Dead Sea Scrolls and the Khirbet Qumran Site: Present Realities and Future Prospects*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994), 163-178; F. M. Cross,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3rd. ed.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188-191; E. M. Cook, “4Q246,”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1995), 43-66; F. M. Cross, “Notes on the Doctrine of the Two Messiahs at Qumran and the Extracanonical Daniel Apocalypse (4Q246),” D. W. Parry and S. D. Ricks, eds., *Current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on the Dead Sea Scrolls* (Leiden: E. J. Brill, 1996), 1-13; J. Zimmermann, *Messianische Texte aus Qumran*, 128-170.

27) 본문의 번역은 다음을 참조하라. É. Puech, “4QApocryphe de Daniel ar,” 69-170; É. Puech, “Le ‘fils de Dieu’ en 4Q246,” 144-146; G. Vermes, *The Complet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576-577; F. Garcia Martínez and E. J. C. Tigchelaar, eds., *The Dead Sea Scrolls Study Edition*, Vol. 2, 493-495.

- 5 [קרוב לחזה בעממא]ונחשירין רב במדינתא
6 [יקומון מלכיא ויתחברון]מלך אתור [ומ]צריין
7 [עד יקום מלך אחרון והוא] רב לחזה על ארעא
8 [מלכיא שלם עמה י]עבדון וכלא ישמשון
9 [לה בר מריא ר]בא יתקרא ובשמה יתכנה

ii열

- 1 ברה די אל יתאמר ובר עליון יקרונה בזיקא
2 די חזותא כן מלכותהן תהוה שנין ימלכון על
3 ארעא וכלא ידשון עם לעם ירוש ומדינה למדי[נ]ה
4 vacat עד יקום עם אל וכלא יניח מן חרב
5 מלכותה מלכות עלם וכל ארחתה בקשוט ידי[ן]
6 ארעא בקשוט וכלא יעבד שלם חרב מן ארעא יסף
7 וכל מדינתא לה יסגדון אל רבא באילה
8 הוא ועבד לה קרב עממין ינתן בידה וכלהן
9 ירמה קדמוהי שלטנה שלטן עלם וכל תהומי [ארעא ישמשון לה]

i열

- 1 [(사람들은 그를) 왕 앞으로 (들어가게 했다.) 그리고 공포가]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왕좌 앞에 엎드렸다.
2 [그리고 그에게(=왕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오] 왕[이시여,] 오래 전부터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들은
3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오, 왕]이시여, [나는] 당신의 환시 그리고 영원까지 일어날 모든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4 [큰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열]강들[에 의해] 땅 위에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5 [백성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들에서 대학살이 일어날 것입니다.
6 [왕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앗시리아와 에집트의 왕과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7 [다른 왕 하나가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는] 땅 위에서 위대해질 것입니다.
8 [왕들은 그와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가 [그를] 섬길 것입니다.
9 [위]대한 [주님의 아들]이라 그는 불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불려

질 것입니다.

ii열

1 그는 하느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환시의 유성들처럼

2 그들의 통치는 그러할 것입니다. 여러 해 동안 그들은 땅 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3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짓밟을 것입니다. 한 백성이 (다른) 한 백성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지방이 (다른) 한 지방을 (짓밟을 것입니다.)

4 (여백) 하느님의 백성이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그가 모두를 칼에서 쉬게 할 때까지.

5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이고,) 그의 모든 길들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는 땅을 진리 안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6 그리고 모든 이들은 평화로울 것이다. 칼이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7 그리고 모든 지방들이 그에게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느님은 그의 힘이십니다.

8 그리고 그분이 그를 위해 전쟁을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 백성들을 그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을

9 그분은 그의 앞에 내던질 것입니다. 그의 지배는 영원한 지배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땅의] 심연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3.3. 본문 분석

4Q246은 지금까지 학계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²⁸⁾ 특히 이 본문에

28) D. Flusser, "The Hubris of the Antichrist in a Fragment from Qumran," *Immanuel* 10 (1980), 31-37; H.-W. Kuhn, "Röm 1,3f und der davidische Messias als Gottessohn in den Qumrantexten," Ch. Burchard and G. Theissen, eds., *Lese-Zeichen für Annelies Findeiß zum 65. Geburtstag am 15. März 1984* (Heidelberg: Carl Winter, 1984), 103-113; F. García Martínez, "The Eschatological Figure of 4Q246," *Qumran and Apocalyptic: Studies on the Aramaic Texts from Qumran* (Leiden: E. J. Brill, 1992), 162-179; G. Vermes, "Qumran Forum Miscellanea I," *JJS* 43 (1992), 299-305;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mmortalité, résurrection, vie éternelle? Histoire d'une croyance dans le Judaïsme ancien*, Vol. II (Paris: Gabalda, 1993), 570-572; J. J. Collins, "The Son of God Text from Qumran," M. C. De Boer, ed., *From Jesus to John: Essays on Jesus and New Testament Christology in Honour of Marius de Jonge*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65-82; J. A. Fitzmyer, "4Q246: The 'Son of God' Document from Qumran," 153-174; J. J. Collins, "A Pre-Christian 'Son of God' Among the Dead Sea Scrolls," *BR* 9 (1993), 35-38, 57; H.-J. Fabry, "Neue Texte aus Qumran," *Bibel und Kirche* 48 (1993), 24-27; K.

서 “하느님의 아들”(בֶּרֶךְ יְיָ אֱלֹהִים)로 불리는 인물의 정체는 다양한 가설들을 낳게 하였다.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학자들의 해석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에서는 이 인물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이해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먼저 “하느님의 아들”(בֶּרֶךְ יְיָ אֱלֹהִים)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첫째, 밀릭(J. T. Milik)에 따르면,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은 자신을 θεοπατωρ, Deo patre natus 등으로 자처한 알렉산더 발라스(Alexandre Balas)를 가리킨다. 둘째, 뵈에쉬(É. Puech), 파브리(H.-J. Fabry), 바이에르(K. Beyer), 슈테게만(H. Stegemann), 슈토이델(A. Steudel), 쿡(E. M. Cook) 등에 따르면 이 인물은 다른 아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다. 셋째, 플루써(D. Flusser)는 이 인물을 거짓 그리스도(Antichrist) 혹은 벨리알의 화신으로 이해한다. 넷째, 베르메쉬(G. Vermes)는 단순히 종말의 어떤 악한 왕으로 해석한다.

한편 “하느님의 아들”(בֶּרֶךְ יְיָ אֱלֹהִי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첫째, 피츠마이어(J. A. Fitzmyer)에 따르면, 이 인물은 출현할 다윗의 자손으

Beyer, *Die aramäischen Texte vom Toten Meer*, 109-113; J. A. Fitzmyer, “The Aramaic ‘Son of God’ Text from Qumran Cave 4,” 163-178; S. L. Mattila, “Two Contrasting Eschatologies at Qumran (4Q246 vs 1QM),” *Bib* 75 (1994), 518-538; F. M. Cross, *The Ancient Library of Qumran and Modern Biblical Studies*, 188-191; J. A. Fitzmyer, “The Palestinian Background of ‘Son of God’ as a Title for Jesus,” T. Fornberg and D. Hellholm, eds., *Texts and Contexts: Biblical Texts in Their Textual and Situational Contexts* (Oslo: Scandinavian University Press, 1995), 567-577; E. M. Cook, “4Q246,” 43-66; J. J. Collins, *The Scepter and the Star: The Messiahs of the Dead Sea Scrolls and Other Ancient Literature* (New York: Doubleday, 1995), 56-172; G. W. Buchanan, “4Q246 and the Political Titles of Jesus,” *Mogilany* 1993 (1996), 77-87; A. Steudel, “The Eternal Reign of the People of God - Collective Expectations in Qumran Texts (4Q246 and 1QM),” *RQ* 17 (1996), 507-525; F. M. Cross, “Notes on the Doctrine of the Two Messiahs at Qumran and the Extracanonical Daniel Apocalypse (4Q246),” 1-13; J. J. Collins, “The Background of the ‘Son of God’ Text,”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7 (1997), 51-62; J. D. G. Dunn, “‘Son of God’ as ‘Son of Man’ in the Dead Sea Scrolls?: A Response to John Collins on 4Q246,” S. E. Porter and C. A. Evans, ed., *The Scrolls and the Scriptures: Qumran Fifty Years Aft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7), 198-210; J. Zimmermann, “Observations on 4Q246 - The ‘Son of God’,” 175-190; J. Zimmermann, *Messianische Texte aus Qumran*, 128-170; É. Puech, “Le ‘fils de Dieu’ en 4Q246,” 143-152; H.-J. Fabry, “Die frühjüdische Apokalyptik als Reaktion auf Fremdherrschaft. Zur Funktion von 4Q246,” A. Steudel, et al., eds., *Antikes Judentum und Frühes Christentum. Festschrift für Hartmut Stegemann zum 65. Geburtstag* (Berlin: Walter de Gruyter, 1999), 84-98; É. Puech, “Some remarks on 4Q246 and 4Q521 and Qumran Messianism,” D. W. Parry and E. Ulrich, eds., *The Prov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Dead Sea Scrolls: Technological Innovations, New Texts, and Reformulated Issues* (Leiden: E. J. Brill, 1999), 545-565; J. A. Fitzmyer, “Aramaic Apocalypse,” L. H. Schiffman and J. C. VanderKam, 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51-52; J. A. Fitzmyer, *The Dead Sea Scrolls and Christian Origins* (Grand Rapids: Eerdmans, 2000), 41-118; G. G. Xeravits, *King, Priest, Prophet: Positive Eschatological Protagonists of the Qumran Library*, 82-89.

로서의 유대의 왕을 가리키지만, 그가 메시아는 아니다. 둘째, 쿤(H.-W. Kuhn), 크로스(F. M. Cross), 콜린스(J. J. Collins) 등은 메시아로서 해석한다. 특히 콜린스(J. J. Collins)는 4Q246의 “하느님 아들”에서 다니엘서 7장의 “사람의 아들”과 다윗의 자손으로서의 메시아라는 두 표상이 융합됨을 주장한다. 셋째, 가르시아 마르티네즈(F. García Martínez)는 다른 쿨란 문헌에 등장하는 멜기세덱, 미카엘, 빛의 우두머리 등과 같은 천상적, 천사적 메시아로 해석한다. 넷째, 헝겔(M. Hengel)은 다니엘서 7장의 “사람의 아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적 메시아 사상을 주장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들을 비판적으로 고려하면서 4Q246에 대한 방법론적 분석은 다음의 결론에 이르게 된다. 4Q246의 본문 전체는 서로 대조적인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²⁹⁾ 첫째 부분(i열 4행-ii열 3행)은 악한 왕들과 그들에 의한 여러 재앙을 묘사하는데, “하느님의 아들”(ברכה די אל; ii열 1행)로 불리는 인물은 이 악한 왕들에 포함된다. 둘째 부분(ii열 4-9행)은 그 시작부터 사본 자체의 여백(vacat)에 의해 뚜렷이 구별되는데, “하느님의 백성”(עם אל)의 출현과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종말론적 시대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

다니엘서의 외경인 4Q246은 다니엘서 7장과 그 문학적 구조와 주제에서 많은 유사성을 가진다. 두 본문 모두 종말론적 주인공으로서 “하느님의 백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종말론적 전환의 직전 상황을 유사하게 묘사한다. 4Q246에서 “하느님의 아들”로 불리는 마지막 악한 왕은 다니엘서에서처럼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이다. 다양한 문헌적,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은 이 가설의 개연성을 탄탄하게 뒷받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부정적 해석을 제안한 가설들 중에서 뻬에쉬(É. Puech), 파브리(H.-J. Fabry), 바이에르(K. Beyer), 슈테게만(H. Stegemann), 슈토이텔(A. Steudel) 등의 가설이 가장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을 긍정적으로, 특히 메시아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가설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하다. 즉 4Q246에서 두 호칭 **ברכה די אל**, **בר עליון**은 메시아적 표상을 가리키지 않는다.

4Q246은 신약성서의 연구에서도 대단한 중요성을 가진다. 우선 4Q246과 루가 1,32-35간의 문학적, 어휘적 유사성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이 두 본문간에는 명백한 차이점이 존재하며, 이 두 본문간의 전승사적 관계를 규명할 분명한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4Q246은 고대 유다이즘의 메시아 사상을 위한 문헌적 증거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아직까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

29) É. Puech, “Some remarks on 4Q246 and 4Q521 and Qumran Messianism,” 548; A. Steudel, “The Eternal Reign of the People of God - Collective Expectations in Qumran Texts (4Q246 and 1QM),” 515.

칭이 명시적으로 메시아적 의미로 쓰인 그리스도교 이전의 문헌과 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한편 4Q246의 본문은 요한 10,22-39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4Q246에서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옳다면, 이 호칭은 고대 유다이즘 안에서, 그리고 예수 당시에 신성모독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요한 복음서의 맥락에서 볼 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성전 봉헌절 축제의 배경에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를 암시한다. 이 암시에 기초한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전승을 우리는 4Q246에서도 발견하게 된다.

4. 7Q5

4.1. 사본 소개

쿠파란의 제 7 동굴에서는 19개의 그리스어 사본들이 발견되었다. 이 사본들의 공식판은 바이에(M. Baillet)에 의해 1962년 DJD III에 발표되었다.³⁰⁾ 이 공식판에서 바이에(M. Baillet)는 7Q1을 출애 28,4-7의 사본으로, 7Q2를 예레미야의 편지 43-44의 사본으로 확인하여 발표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17개의 그리스어 사본은 미확인 상태로 발표하였다. 그 후 오칼라간(J. O'Callaghan)은 이 미확인 사본들에 대한 놀라운 가설을 제기하였다. 그는 처음으로 1972년에 발표한 논문과³¹⁾ 그 후의 글들에서³²⁾ 쿠파란의 제 7 동굴에서 발견된 여러 그리스어 사본이 신약성서의 사본 단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7Q4(=1디모 3,16; 4,1-3), 7Q5(=마르 6,52-53), 7Q6 1(=마르 4,28), 7Q6 2(=사도 27,28), 7Q7(=마르 12,17) 7Q8(=야고 1,23-24), 7Q9(=로마 5,11-12), 7Q10(=2베드 1,15), 7Q15(=마르 6,48)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는 7Q4와 7Q5를 확실한 것으로 간주했다. 그 후 오칼라간(J. O'Callaghan)의 이 가설은 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바이에(M. Baillet)를 비롯한 대다수의 학자들은 오칼라간(J. O'Callaghan)의 가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³³⁾ 그

30) M. Baillet, *DJD,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62), 142-146.

31) José O'Callaghan, “¿Papiros neotestamentarios en la cueva 7 de Qumrán?” *Bib* 53 (1972), 91-100.

32) 상세한 참고 문헌은 J. A. Fitzmyer, *The Dead Sea Scrolls. Major Publications and Tools for Study*, 3rd. ed. (Atlanta: Scholars Press, 1990), 168-169를 보라.

33) M. Baillet, “Les manuscrits de la Grotte 7 de Qumrán et le Nouveau Testament-1,” *Bib* 53 (1972), 508-516; M. Baillet, “Les manuscrits de la Grotte 7 de Qumrán et le Nouveau Testament-2,” *Bib* 54 (1973), 340-350; P. Benoit, “Notes sur les fragments grecs de la Grotte 7 de Qumrán,” *RB* 79 (1972), 321-324; P. Benoit, “Notes sur les fragments grecs de la Grotte 7 de Qumrán,” *RB* 80 (1973), 5-12. 그리고 J. A. Fitzmyer, *The Dead Sea Scrolls. Major Publications and Tools for*

러나 알론소 쉐켈(L. Alonso Schökel), 로리쉬(F. Rohrhirsch), 티데(C. P. Thiede)³⁴⁾ 등은 이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쿵란에서 가장 오래된 신약성서의 사본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티데(C. P. Thiede)는 7Q5의 필사 시기를 기원후 50년경으로 추정한다. 만일 오칼라간(J. O'Callaghan)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가설이 옳다면 쿵란 공동체의 거주자들에 대한 학계의 통설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쿵란 거주지의 마지막 단계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서의 사본들이 쿵란의 동굴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쿵란에서 살았다는 증거가 된다. 아니면 적어도 쿵란 공동체가 신약성서를 알고 읽었다는 증거가 된다.³⁵⁾

우리는 논란이 많은 파피루스 사본인 7Q5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7Q5 사본과 마르 6,52-53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검토해볼 것이다. 7Q5은 3.9 cm 높이와 2.7 cm너비의 다섯 행으로 된 작은 사본이다. 그리고 공식판은 7Q5의 필사 시기를 기원전 50년에서 기원후 50년 사이로 추정한다.

4.2. 본문(공식판,³⁶⁾ 오칼라간,³⁷⁾ 에쉬³⁸⁾)

공식판	오칼라간(J. O'Callaghan)	뻬에쉬(É. Puech)
][] TωIA[]€[][] ^Y / _C TωI A[]H ⁰ / _Θ

Study, 169-172를 보라. 최근의 비판적인 글은 다음과 같다. É. Puech, “Des fragments grecs de la grotte 7 et le Nouveau Testament? 7Q4 et 7Q5, et le papyrus Magdalen grec 17 = P64,” *RB* 102 (1995), 570-584; M.-É. Boismard, “A propos de 7Q5 et Mc 6,52-53,” *RB* 102 (1995), 585-588; P. Grelot, “Note sur les propositions du Pr Carsten Peter Thiede,” *RB* 102 (1995), 589-591; É. Puech, “Notes sur les fragments grecs du manuscrit 7Q4=1Hénoch 103 et 105,” *RB* 103 (1996), 592-600; É. Puech, “Sept fragments grecs de la Lettre d'Hénoch(1Hén 100, 103 et 105) dans la grotte 7 de Qumrân(=7QHén gr),” *RQ* 18 (1997), 313-323.

34) C. P. Thiede, “7Q -Eine Rückkehr zu den neutestamentlichen Papyrusfragmenten in der siebten Höhle von Qumran,” *Bib* 65 (1984), 538-559; C. P. Thiede, *Die älteste Evangelien- Handschrift? Das Markus-Fragment von Qumran und die Anfänge der schriftlichen Überlieferung des Neuen Testaments* (Wuppertal: Brockhaus, 1986). 이 책은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었다. 불어 번역은 다음을 보라. C. P. Thiede, *Qumrân et les Évangiles. Les manuscrits de la grotte 7 et la naissance du Nouveau Testament. Le fragment 7Q5 est-il le plus ancien manuscrit de l'Évangile de Marc?* (Paris: F.-X. de Guibert, 1994); C. P. Thiede, “Greek Qumran Fragment 7Q5: Possibilities and Impossibilities,” *Bib* 75 (1994), 394-398.

35) J. C. VanderKam, *The Dead Sea Scrolls Today* (Grand Rapids: Eerdmans, 1994), 66.

36) M. Baillet, “7Q5,” M. Baillet, J. T. Milik, and R. de Vaux, eds., *DJD*,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62), 144.

37) J. O'Callaghan, “¿Papiros neotestamentarios en la cueva 7 de Qumran?” 93-97.

38) É. Puech, “Des fragments grecs de la grotte 7 et le Nouveau Testament? 7Q4 et 7Q5, et le papyrus Magdalen grec 17 = P64,” 576.

]H KAITω[]NNHC[]ΘHC[]YTωNH[]H KAITI[]NNHC[]ΘHCA[]H KAITω[]NNH ^ε /c[]ΘHC ^ε /ε[
------------------------------	--	---

오칼라간(J. O'Callaghan)과 티데(C. P. Thiede)의 가설에 기초하여 마르 6,52-53을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

[συνηκάν]ε[πιτοισαρτοισ]
 [αλληνα]υτωνη[καρδιαπεπωρω]
 [μεν]η καιτι[απερασαντες]
 [ηλθονεισΓε]ννησα[ρετκαι]
 [προσωρμισ]θησα[νκαιεξελ]

4.3. 본문 분석

7Q5의 분석에 있어서 일차적인 관심은 정확한 고문서학적 해독이다. 1행의 흔적들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다. 공식판은 ε/Θ/0/C 등의 가능성을 제시하며,³⁹⁾ 오칼라간(J. O'Callaghan)은 ε를 선택했다. 2행에서 공식판의 TωIA는 확실하다. 3행에서]H는 확실하다. 이것은 5행의 H와 비교해보면 분명하다. 그 다음 KAI는 확실하다. 그리고 T 다음에 ω나 0은 가능하나 오칼라간(J. O'Callaghan)의 I는 불가능하다. 4행에서]NNH 다음에 있는 아래가 불룩한 필체의 흔적으로 보아 C이 개연적이며 Θ나 0도 가능하다. 5행에서 첫 글자는 Θ이 0보다 더 개연적이며 H는 확실하다. 그 다음으로 C는 e 보다 더 개연적이다. 마지막으로 불룩한 필체의 흔적은 ε나 Θ이 0나 C보다 더 개연적이다. 그러나 오칼라간(J. O'Callaghan)가 주장하는 A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A의 아래로 떨어진 사선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2행의 N, 3행의 I, 5행의 A는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실은 결국 7Q5는 마르 6,52-53과 그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한다.

한편 오칼라간(J. O'Callaghan)과 그를 따르는 이들은 3행의 TI는 마르 6,53의 ΔI의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서의 본문비평의 관점에서 보면, 3행

39) M. Baillet, *DJD*, III (Oxford: Clarendon Press, 1962), 144.

의 TI(=τιαπερασιντες)이 마르 6,53의 ΔΙ(=διαπεράσιντες)을 변형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그 어떠한 마르코 복음서의 사본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7Q5를 마르 6,52-53의 사본이라고 주장하는 오칼라간(J. O'Callaghan)과 그를 따르는 이들의 가설은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오칼라간(J. O'Callaghan)의 주장과는 달리 7Q4는 오히려 에녹의 편지 103,2-4와 105,1에 해당하고, 7Q4.8.11.12.13.14는 에녹서의 마지막 부분의 그리스어 번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연구에 의해 밝혀졌다.⁴⁰⁾

5. 11Q13

5.1. 사본 소개

1965년에 반 데르 우데(A. S. van der Woude)는 쿰란의 제 11동굴에서 발견된 13개의 단편들을 11QMelch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⁴¹⁾ 이 이름은 멜기세덱이 그 사본의 중심 인물이기 때문에 붙여졌다. 그 후 야딘(Y. Yadin)이 이 사본의 판독을 위해 몇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였고⁴²⁾ 반 데르 우데(A. S. van der Woude)는 드 종취(M. de Jonge)와의 공동 작업으로 사본의 예비판을 수정하였다.⁴³⁾ 그 후 많은 쿰란 연구자들이 사본의 분석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의 해석에 대해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다.⁴⁴⁾ 특히 밀릭(J. T. Milik)과 뵈

40) É. Puech, “Des fragments grecs de la grotte 7 et le Nouveau Testament? 7Q4 et 7Q5, et le papyrus Magdalen grec 17 = P64,” 570-584; É. Puech, “Notes sur les fragments grecs du manuscrit 7Q4=1Hénoch 103 et 105,” 592-600; É. Puech, “Sept fragments grecs de la Lettre d'Hénoch(1Hén 100, 103 et 105) dans la grotte 7 de Qumrân(=7QHén gr),” 313-323.

41) A. S. van der Woude, “Melchizedek als Himmlische Erlösergestalt in den neugefundenen Eschatologischen Midraschim aus Qumran Höhle XI,” *Oudtestamentische Studiën* 14 (1965), 354-373.

42) Y. Yadin, “A Note on Melchizedek and Qumran,” *IEJ* 15 (1965), 152-154.

43) M. de Jong-A. S. van der Woude, “11QMelchizedek and the New Testament,” *NTS* 12 (1965-66), 301-326.

44) D. Flusser, “Melchizedek and the Son of Man (A Preliminary Note on a New Fragment from Qumran),” *Christian News from Israel* 17 (1966), 23-29, 이 논문은 D. Flusser, *Judaism and the Origins of Christianity* (Jerusalem: Magnes Press, 1988), 186-192에 재수록 되었다; J. A. Fitzmyer, “Further Light on Melchizedek from Qumran Cave 11,” *JBL* 86 (1967), 25-41. 이 논문은 J. A. Fitzmyer, *The Semitic Background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97), 245-267에 재수록되었다; J. Carmignac, “Le document de Qumrân sur Melchisédeq,” *RQ* 7 (1970), 343-378; D. F. Miner, “A Suggested Reading for 11QMelchizedek 17,” *JSJ* 2 (1971), 144-148; J. T. Milik, “Milkā-sedeq et Milkā-resa,” 95-144; A. Caquot, “Hebreu et Araméen,” *Annuaire du Collège de France* 73 (1973), 386-389; F. L. Horton, *The Melchizedek Tradition* (Cambridge:

에쉬(É. Puech)의 연구는 이 사본을 새롭게 이해하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 사본의 공식판(editio princeps)은 1998년에 DJD XXIII에서 발표되었다.⁴⁵⁾

11Q13에 대한 고문서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사본은 기원전 1세기 중엽⁴⁶⁾ 혹은 75-50년경⁴⁷⁾의 후기 하스모네아 필체로 필사되었다. 그러나 사본의 저작 시기 추정(datation de composition)은 훨씬 더 까다롭다. 왜냐하면 그 추정은 사본의 내용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밀릭(J. T. Milik)에 따르면, 이 사본은 정의의 스승이 활동하고 있었던 기원전 120년경에 저작되었다.⁴⁸⁾ 만일 11Q13이 창세 14,18의 כהן לאל עליון이라는 호칭을⁴⁹⁾ 사용한 하스모네아 대사제들의 비합법적 사제직에 대한 비판이라면, 이 사본의 저작은 기원전 2세기의 후반후 혹은 125-100년경으로 추정된다.⁵⁰⁾

멜기세덱은 히브리어 성서에서 두 번 언급되는데, 창세 14,18-20과 시편 110, 4에 등장한다. 그는 “살렘의 왕”(מלך שלם)이며 “지존하신 하느님의 사제”(כהן לאל עליון)이다. 그런데 쿰란의 제 11동굴에서 발견된 사본(11Q13)은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다. 히브리서의 그리스도론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대사제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1Q13과 히브리서의 대사제 그리스도론 간의 긴밀한 유사성이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6); P. J. Kobelski, *Melchizedek and Melchiresa* (Washington D.C.: Catholic Biblical Association, 1981); C. Gianotto, *Melchisedek e la sua tipologia* (Brescia: Paideia, 1984); É. Puech, “Notes sur le manuscrit de XIQMélkâsédeq,” *RQ* 12 (1987), 483-513; P. Sacchi, “Esquisse du développement du messianisme juif à la lumière du texte qumranien 11QMélch,” *ZAW* 100 (1988), *Supplement* 202-214; T. H. Lim, “11QMélch, Luke 4 and the Dying Messiah,” *JJS* 43 (1992), 90-92; M. J. Davidson, *Angels at Qumran* (Sheffield: JSOT Press, 1992);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I, 515-562; M. Bodinger, “L’énigme de Melkisédeq,” *RHR* 211 (1994), 297-333; P. Garuti, “Melchisedek nei testi di Qumran e nelle lettera agli Ebrei,” *Atti e Memorie Serie VII-Volume XIII* (1995-1996), 295-317; F. Manzi, *Melchisedek e l’angelologia nell’epistola agli Ebrei e a Qumran* (Roma: Editrice Pontificio Istituto Biblico, 1997); P. Rainbow, “Melchizedek as a Messiah at Qumran,” *Bulletin for Biblical Research* 7 (1997), 179-194; J. Zimmermann, *Messianische Texte aus Qumran*, 389-412; G. G. Xeravits, *King, Priest, Prophet: Positive Eschatological Protagonists of the Qumran Library*, 68-75, 191-204.

45) F. García Martínez, E. J. 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 “11Q13 (Melchizedek),” *DJD*, XXIII (Oxford: Clarendon, 1998), 221-241.

46) É. Puech, “Notes sur le manuscrit de XIQMélkâsédeq,” 507-508;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I, 519-520.

47) J. T. Milik, “Milkâ-sedeq et Milkâ-resa,” 97; F. García Martínez, E. J. C. Tigchelaar, and A. S. van der Woude, “11Q13(Melchizedek),” 223.

48) J. T. Milik, “Milkâ-sedeq et Milkâ-resa,” 126.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정의의 스승과 동일시하더라도, 11Q13이 정의의 스승이 살아 있을 당시에 저작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49) 요한 히르카누스는 이 호칭을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다: Flavius Josèphe, *AJ XVI* § 163, Ὑρκανοῦ ἀρχιερέως θεοῦ ὑψίστου(히르카노,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대사제).

50)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I, 521-522.

불러 일으켰다. 특히 쿨란 공동체가 히브리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물론 두 문헌 사이의 차이점도 지적되었다.⁵¹⁾

따라서 우리는 쿨란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11Q13에 등장하는 멜기세덱의 정체와 사명을 규명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11Q13의 전체 맥락 안에서 특히 11Q13 ii 1-25의 본문을 분석하려고 한다.

5.2. 본문⁵²⁾과 번역

11Q13 ii 1-25

- 1 [] לים אלוהיך מלך מל []
- 2 [] ואשר אמר בשנת היובל [הזואת תשובו איש אל אחוזתו כאשר כתוב וז]ח
- 3 3 [ד] בר [השמטה] שמוט כול בעל משה יד אשר ישה [ברעהו לוא יגוש את רעהו ואת אחיו כיא קרא] שמטה
- 4 4 לאל פש[רו] לאחרית הימים על השבויים אשר [אמר עליהמה לקרוא לשבויים דרור] ואשר
- 5 5 מוריהמה מוכאי העצרה ומנחלת מלכי צדק כי[א ידע רוח] ותמה וחמה נחל[ת מלכי צ]דק אשר
- 6 6 ישיבמה אליהמה וקרא להמה דרור לעזוב להמה [משא] כול עוונותיהמה ו[יעש]ה הדבר הזה
- 7 7 בשבוע היובל הראישון אחר תשע[ת ה]יובלים וי[ו]ם [הכפ]ורים ה[וא]ה ס[וף היו]בל העשירי
- 8 8 לכפר בו על כול בני א[ל ו]אנש[ני] גורל מל[כי] צדק [ובמר]ום עלי[המ]ה התד[בר] לפי גורל[ותמה] כיא
- 9 9 הואה הקץ לשנת הרצון למלכי צדק ולהר[ים בדי]ן קדושי אל לממשלת משפט כאשר כתוב
- 10 10 עליו בשירי דויד אשר אמר אלוהים [נ]צב בע[דת אל] בקרוב אלוהים ישפוט ועליו אמנ[ך ו]עליה
- 11 11 למרום שובה אל ידין עמים ואשר א[מר עד מתי ת]שפוטו עוול ופני רשעים תש[או ס]לה

51) A. Steudel, "Melchizedek," L.H. Schiffman and J. C. VanderKam(eds.), *Encyclopedia of the Dead Sea Scrolls, Vol. 1*, 535-537.

52) 본문과 번역은 다음을 보라. É. Puech, "Notes sur le manuscrit de XIQMelchizedek," 483-513;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I*, 522-526.

- 12 פשרו על בליעל ועל רוחי גורלו אשןר כולמה היו הממ[רים בסורמה מחוקי אל ל[הרשיע]
- 13 ומלכי צדק יקום נקם משפטי א[ל ביום ההואה וינצי]ל[ו מיד] בליעל ומיד כול ר[וחי גורלו]
- 14 ובעזרו כול אלי [הצדק ו]הואה א[שר יעמד ביום ההואה על כול בני אל והפק[יד היס]וד
- 15 הזואת הוא יום הש[לום א]שר אמר [על מלכי צדק בדברי ישע]יה הנביא אשר אמר [מה] נאוו
- 16 על <החרים רגלי מבשןר מ[שמיע שלום מב]שר טוב משמיע ישוע[ה א]א[ומר לציון [מלך] אלוהיד]
- 17 פשרו החרים [המה] הנביאי[ם] המה א[שר שמעו והקשיבו בלב]במ[ה] לכול אשןר צוה/דבר אל
- 18 והמבשר הו[א]ה משיח הרו[ח] אשר אמר הנ[יאל עליו עד משיח נגיד שבועים שבעה ומבשר]
- 19 טוב משמיע ישוע[ה] הואה חכ[תו]ב עליו אשר [ישלח להמה לנחם כול אבלים לשום לאבלי ציון]
- 20 לנח[ם] ה[אבלים פשרו] ל[ה]שכילמה בכול קצי הע[ולמים ולהודעמה]
- 21 באמת למ[שפט] הו[א]ה א[שר אמר]
- 22 [רוח]ך הוסרה מבליעל ותש[וב אל אדוני ביום] נק[ם] בליעל ורוחי גורלו / בסוף היובל העשירי
- 23 וישפוט מלכי צדק [במשפט]י אל כאשר כתוב עליו [אומר לציון מלך אלוהיד [צ]יון ה[י]אה]
- 24 עדת כול בני הצדק המה [מקימ]י הברית הסרים מלכת [בר]ך העם ואל[ו]היד הואה
- 25 [השר מלכי צדק אשר יצי]ל[מה מי]ך בליעל ואשר אמר והעברתמה שו[ן]פר איל ב[כול א]רץ

1 너의 하느님, 왕들의 왕

2 그분이 말씀하셨다. “[이] 희년에 [너희는] 저마다 제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3 [그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탕감에] 관한 규정은 이러하다. [이웃에게] 빛을 준 모든 사람은 자기가 꾸어 준 것을 탕감해 주어야 한다. 하느님의 탕감령이 [선포되었으므로, 자기 이웃이나 동족에게 독촉해서는 안 된다.”]

4 [그것의] 해석은 갇힌 이들과 관련한 마지막 날들에 [관한 것이다. 그분은 말

씀하셨다. “간힌 이들에게 석방을 선포하기 위하여”]

5 가르치는 이들은 모임의 부서진 이들과 뿔기세택의 유산 가운데 있다. 왜냐 하[면 그는] 그들의 [영들을 알고,] 그들은 [뿔기세택의 유]산인데

6 그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그들 잘못의 모든 [빛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기 위하여 석방을 선포할 것이다. 이 일은

7 아[홉] 번째 회년이 지난 다음 첫째 주에 일어날 것이다. 속[죄일은] 열 번째 [회]년의 마지막인데

8 그때 [하느님의] 모든 아들과 뿔[기]세택에게 속한 이들을 위해 속죄가 행해질 것이다. 높[은 곳에서] 그들을 위하여 그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말[할 것이다.]

9 왜냐하면 그것은 뿔기세택을 위한 은총의 해이며, 또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심판을 통]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다.

10 그것에 대해 다윗의 노래에 쓰여진 대로: “하느님께서 [신들의 모]임에서 일[어]서서어 그 신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는도다.” 그것에 대해 그는 말했다: “그 위

11 높은 곳에 자리하소서.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도다.” 그리고 그는 말[했다: “너희는 언제까지] 불의로 심판하며 악인들의 [편에] 있으려느냐?” [셀]라

12 그것의 해석은 벨리알과 그에게 속한 영들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반[역]자들이었다. 그들 모두는 악을 행하여] 하느님의 계명들을 어기었다.]

13 그러나 뿔기세택은 [바로 그 날에] 하느님 심판의 징별을 행할 것이고 [그들을] 벨리알의 [손과 그에게 속한] 영들의 손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14 그의 도움으로 모든 [정의의] 신들이 올 것이고 그는 바로 그 날에 모든 하느님의 아들들 위에 일어설 것이고 이 [모임을] 주관[할 것이다.]

15 이것은 [이사]야 예언자의 [말들에서 뿔기세택에 대해] 말한 바 있는 [평화]의 날이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16 산 위에 서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밭.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 ‘너의 하느님께서는 [임금님이시다]’]하고 시온에게 말하는구나.”

17 그것의 해석: 산들은 예언자들이구나. [그들은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 그것에 마음깊이 주의를 기울인다.]

18 소식을 전하는 이는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다: [일곱 주간이 지나서야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가 나올 것이다.]

19 구원을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

는 이이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온의 슬퍼하는 이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그들에게 보내실 것이다.”]

20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그것의 해석]: 모든 영[원한 세대에 대해]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하여.]

21 진리 안에서 [심판을] 위하여, [그]는 [말했다]

22 너의 [영은] 벨리알의 손에서 벗어났고 [벨리알과 그에게 속한 영들의 징]벌의 [날에 (열 번째 회년의 마지막에) 주님께로] 돌[아 갈 것이다.]

23 [멜기세덱은] 하느님의 심판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것에 대해 쓰여진 대로: “시[온에게 말]하라. 너의 하느님께서 통치하신다.” [시]온 그[것은]

24 [정의의 모든 아들들의 모임인데, 그들은] 계약을 세우고 백성의 길 [위로] 걷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너의 하느님” 그는(멜기세덱은)

25 [그들을] 벨리알의 [손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는 온 땅[에 나팔소리를] 울려라.”

5.3. 본문 분석

11Q13의 문학 양식은 4QMidEsch(4Q174+4Q177)⁵³⁾처럼 주제적인 성서 해석(pesher)이다.⁵⁴⁾ 이 사본에서 פֶּשֶׁרוֹ(그것의 해석)이라는 표현은 사본이 잘 보존된 부분에서 세 번(ii 4.12.17), 사본이 손상되었으나 재구성이 가능한 부분에서 한 번(ii 18) 등장한다. 이 표현은 각각 성서 구절의 인용 다음에 위치한다. 첫째 성서 인용인 레위 25,13은 회년(בִּשְׁנַת הַיּוֹבֵל)과 관계가 있고, 둘째 성서 인용인 신명 15,2는 안식년이라는 배경에서 빛의 탕감(הַשְּׂמִטָּה)에 대해 말하며 그 후 פֶּשֶׁרוֹ라는 표현이 나온다(ii 4). 인용된 성서 구절은 본문 안에서 종말론적 전망(לְאַחֲרִית הַיָּמִים)에서 해석되며 이사 61,1-2의 맥락 안에서 멜기세덱의 활동으로 소개된다. 셋째 성서 인용은 시편 82,1; 7,8-9; 82,2 등에서 발췌된 것으로 심판에 대해 언급한다. 이 성서 구절은 פֶּשֶׁרוֹ(ii 12) 이하에서 해석되는데, 역시 이사 61,1-3의 맥락 안에서 멜기세덱의 심판으로 설명된다. 넷째 성서 인용인 이사 52,7은 구원과 평화의 선포이다. 이 선포의 주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이다. 이와 같이 11Q13은 율법,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집에서 인용된 성서 구절들에 대한 주제적 성서 해석이다.

11Q13 ii 6에서 레위 25,13의 회년은 갇힌 이들의 석방과 관련된다. 그리고 멜

53) A. Steudel, *Der Midrasch zur Eschatologie aus der Qumrangemeinde (4QMidrEschat a,b)* (Leiden: E. J. Brill, 1994); É. Puech, *La croyance des Esséniens en la vie future*, II, 572-591.

54) J. Carmignac, “Le document de Qumrân sur Melkisédèq,” 360-362.

기세텍은 둘째 회년의 첫째 주간에 석방을 선포한다.⁵⁵⁾ 11Q13 ii 7에는 레위 25,8-17의 회년과 관련 있는 속죄의 날이라는 매우 중요한 모티프가 발견된다. 이 날은 멜기세덱이 하느님의 자녀들과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결정적인 속죄를 행하는 열 번째 회년의 마지막을 가리킨다(8행). 그리고 이 문장에서 사제적 역할이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곧이어 멜기세덱이 속죄를 행할 그 날은 11Q13 ii 8에서 은총의 해로서 설명된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벨리알과 그에게 맡겨진 모든 영들에 대해 하느님 심판의 징벌을 행한다. 이와 같이 11Q13에서 멜기세덱은 천상적인 인물로서 대사제이며 종말론적 심판자요 구원자이다. 그러나 그는 천상적인 메시아로 불려지지는 않는다.⁵⁶⁾

한편 11Q13 ii 16에서 인용되는 이사 52,7의 “소식을 전하는 이”(מְבַשֵּׂר)는 18행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מְשִׁיחַ הָרוּחַ)로 해석된다. 이 표현은 이사 61,1을 암시한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사 61,1-3의 화자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분석에 따르면⁵⁷⁾ 이사 61,1-3은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떤 대사제의 연설이다. 이 연설에서 그는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밝힌다. 그는 대사제로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사 61,1-3에 근거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소식을 전하는 이” 즉 예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우리는 11Q13에서 서로 구별되는 두 종말론적 인물을 발견한다. 즉 멜기세덱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이다. 멜기세덱은 천상적인 인물로서 대사제이며 종말론적 심판자요 구원자인 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종말론적 예언자이다.

쿰란의 에세네 사람들은 사실 11Q13에서 묘사된 멜기세덱에 대한 희망을 통해 요한 히르카누스 이후에 ἀρχιερέως θεοῦ ὑψίστου(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대사제)라는 칭호를 사용한 하스모네아 가문의 비합법적인 대사제들과 그들의 사제직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1Q13의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는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론을 뒷받침하는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즉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11Q13는 구약성서와 히브리서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⁵⁸⁾ 이것은 히브리서의 독자와 멜기세덱이라는 주제의 관련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1Q13을 통해 이미 멜기세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론은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55) J. T. Milik, “Milkâ-sedeq et Milkâ-resa,” 101.

56) É. Puech, “Messianisme, eschatologie et résurrection dans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282.

57) P. Grelot, “Sur Isaïe LXI: La première consécration d'un grand-prêtre,” *RB* 97 (1990), 414-431.

58) É. Puech, “Les manuscrits de la mer Morte et le Nouveau Testament,” 302-306.

나오는 말

이상에서 우리는 4Q285, 4Q448, 4Q246, 7Q5, 11Q13을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방법론으로 분석하였다. 쿰란 학자들의 다양한 가설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사본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였다. 이 다섯 사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쿰란 사본들이 성서 연구에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4Q285는 먼저 쿰란 공동체의 사본에 인용된 구약성서 본문의 전송 단계를 보여주며, 그 본문이 쿰란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해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본은 특히 이사 10,34-11,1이 쿰란 공동체의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 안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 해석은 쿰란의 다른 사본에서 뿐 아니라 신약 성서에서도 발견된다. 그리고 4Q285는 사본 연구에서 재구성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단편들로 구성된 사본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재구성은 사본의 올바른 판독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편 4Q285는 사본의 정확한 판독이 본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낸다. 잘못된 사본 판독에 근거한 그 어떤 가설도 신뢰성을 가지지 못한다. 이 사본에 대하여 메시아의 죽음을 주장하는 가설은 본문과 그 맥락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그리스도교 이전에 이미 유다이즘 안에 존재했다는 가설은 그 어떤 문헌적 근거를 가지지 못한다.

둘째, 4Q448은 사본 연구에 있어 고문서학적 연대 추정과 본문에 등장하는 역사적 인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준다. 역사적 실제 인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사본의 저작과 필사시기의 연대 추정을 위해 중요하며, 그 사본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4Q448의 연대추정과 요나단의 정체 규명은 쿰란 공동체의 초기 역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분석에 따르면, 4Q448과 또 다른 요나단 사본인 4Q523에 등장하는 요나단은 요나단 마카베오이며, 이 사본들은 그에 대한 쿰란 공동체의 평가를 제공한다. 요나단 마카베오는 쿰란 공동체의 창시자인 “정의의 스승”을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직으로부터 쫓아내고 그 직책을 찬탈한 인물이다. 그는 1QpHab 등의 쿰란 사본에서 “악한 사제”라 불린다. 이와 같이 4Q448은 기원전 2세기의 유대 역사와 쿰란 공동체의 역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사료이다.

셋째, 4Q246은 성서 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논란이 많은 사본이다. 이 사본은 아람어 다니엘서 외경인데, 특히 다니엘서 7장은 4Q246의 문학적 구조, 어휘, 내용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이 사본에 등장하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신구약 중간시기에 이 호칭이 어떻게 이해되고 사용되었는지

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헌이다. 4Q246의 “하느님의 아들”에 대한 해석은 매우 다양하다. 긍정적인 해석과 함께 부정적인 해석도 제시되었다. 이 “하느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 가설에 따르면 4Q246은 메시아를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명시적으로 지칭하는 최초의 문헌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4Q246과 루가 1,32-35 사이의 문학적 유사성은 매우 놀랍다. 그러나 이 유사성이 4Q246에 대한 메시아적 해석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4Q246의 문학적 구조는 “하느님의 백성”을 새로운 종말론적 시대의 주인공으로 묘사하며, “하느님의 아들”은 이 종말론적 전환 직전의 마지막 악한 왕을 가리킨다. 그를 안티오크스 4세로 해석하는 가설은 요한 10,22-39의 이해를 위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넷째, 7Q5는 사본 연구에 있어 정확한 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잘못된 사본 판독이 특정 가설의 근거로 이용될 때 어떤 잘못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사본은 쿨란 사본과 신약성서, 쿨란 공동체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헌적 고찰에 의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지나친 상상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7Q5를 마르 6,52-53의 사본으로 주장하는 가설은 그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11Q13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 사이에서 쿨란 사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준다. 즉 11Q13는 구약성서에서는 창세 14,18-20과 시편 110,4에서만 언급되는 멜기세덱이 신약성서 히브리서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11Q13을 잘 알고 있었던 과거의 쿨란 공동체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론은 전혀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이해를 위한 쿨란 사본의 중요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쿨란의 다섯 사본은 성서 연구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한다. 즉 사본 연구에 있어서 정확한 판독과 사본의 재구성, 그리고 사본 연대추정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한편 쿨란 사본은 구약성서 본문 전승의 역사와 그 해석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헌일 뿐 아니라 신약성서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이해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 주요어

쿨란 사본, 4Q285, 4Q448, 4Q246, 7Q5, 11Q13, 쿨란 사본의 재구성, 쿨란 공동체,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

<Abstract>

Qumran Manuscripts and Biblical Studies: 4Q285, 4Q448, 4Q246, 7Q5, 11Q13.

Prof. Chang-Hyun Song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mran manuscripts and biblical studies. Among the Qumran manuscripts, the controversial manuscripts of 4Q285, 4Q448, 4Q246, 7Q5, 11Q13, which are the focus of scholars' dispute, have particularly been analyzed in relation to biblical studies. We have first introduced each manuscript briefly, attempted to translate the texts, and used literary and historical methods to analyze them. Through our studies of these five manuscripts,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values they hold for biblical studies. Our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4Q285 manuscript illustrates the stages of transmission of the Old Testament texts quoted in the Qumran manuscripts, and how they were understood by the Qumran community. This in particular proves that Isaiah 10:34-11:1 wer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the eschatological and messianic beliefs of the Qumran community, and this is found not only in other Qumran manuscripts but also in the New Testament. In addition, it illustrates the importance of reconstruction in manuscript studies, and also clearly reveals that accurate reading of the manuscript is the starting point of correct translation of the text.

Secondly, the 4Q448 manuscript shows how important it is for manuscript studies to discern the paleographic dates of manuscripts and to find out the identities of historical figures appearing in the text. Discerning the paleographic date of 4Q448 and finding out the identify of Jonathan constitutes very important information for the study of the early history of the Qumran community. Jonathan, who appears in 4Q448 and also in 4Q523, which is another manuscript with the appearance of Jonathan, is Jonathan Maccabee, and these manuscripts provide information about how the Qumran community thought of him. In Qumran manuscripts such as 1QpHab, etc., he is regarded as the "Wicked Priest." The 4Q448 manuscript is a precious document for study of the history of the Jews in 2C B.C. and the Qumran

community.

Thirdly, the 4Q246 manuscript is the most important, and at the same time controversial, in biblical studies. This manuscript carries the apocryphal book of Daniel in Aramaic, and Chapter 7 of Daniel greatly influenced the literary structure, words, and contents of 4Q246. This 4Q246 manuscript is important, as the expression “Son of God” found in it shows how this appellation was understood and used in the period in between the Old and the New Testaments.

Fourthly, the 7Q5 manuscript once again exemplifies the importance of accurate reading in manuscript studies, and vividly shows how incorrect manuscript reading can lead to all the wrong consequences when it is used as the basis of a certain hypothesis. This manuscript well illustrates the kind of results we can get regard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Qumran manuscripts and the New Testament, and the Qumran community and early Christian community from over-imaginative thinking not based on objective facts from literature review.

Fifthly, the 11Q13 manuscript clearly shows the role of Qumran manuscripts, in betwee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That is, 11Q13 provides valuable clues for understanding how Melchizedek, who was mentioned only in Genesis 14:18-20 and Psalms 110:4 of the Old Testament, comes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book of Hebrews in the New Testament. That is because the people of the Qumran community who knew the 11Q13 manuscript would be perfectly familiar with the Christ being referred to as Melchizedek in the book of Hebrews. In such a context, we can assume the significance of the Qumran manuscripts for our understanding of the New Testament.

The five Qumran manuscripts analyzed above suggest very important points for biblical studies. In other words, they remind us of the importance of accurate reading, reconstruction of the manuscripts, and tracing of manuscript dates in manuscript studies. On the other hand, the Qumran manuscripts are important not only for studying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text transmission and interpretation, but also for providing invaluable clues for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and early Christian community.